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2016 Vol. 193

04
Monthly Magazine

Special Performance

연극 '에쿠우스'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시즌패키지를 이용하시면

울산문화예술회관의 품격있는 공연을

가장 좋은 좌석, 가장 좋은 할인율로 만날 수 있습니다.

01

명품클래식시리즈

• 패키지1차판매(1.25~3.31 유료회원 40%, 무료회원 20%) • 패키지2차판매(4.4~5.31 유료회원 40%, 무료회원 20%)
* 2차판매는 쿠폰방식이므로 쿠폰구매 후 개별공연을 쿠폰으로 예매해야하며 V석에 한합니다.

★ 6. 04(토) 스웨덴 예블레심포니오케스트라 내한공연

★ 6. 17(금) 앙상블디토 & 비엔나체임버오케스트라 내한공연

02

월드아티스트시리즈

• 패키지1차판매(1.25~3.31 유료회원 40%, 무료회원 20%) • 패키지2차판매(4.4~9.23 유료회원 40%, 무료회원 20%)
* 2차판매는 쿠폰방식이므로 쿠폰구매 후 개별공연을 쿠폰으로 예매하셔야 합니다.

★ 09. 28(수) 바이올린 사야카 쇼지 & 피아노 손열음

★ 10. 14(금) 첼로 스티븐 이설리스

★ 11. 22(화) 리코더 모리스 슈테거 & 하프시코드 장 룽도

★ 12. 09(금) 피아노 니콜라이 데미덴코

03

11시 모닝콘서트 패키지 2차 쿠폰판매

• 5월이후 6회공연(2.22~4.19 유료회원 40%, 무료회원 20%)
* 2차판매는 쿠폰방식이므로 쿠폰구매 후 개별공연을 쿠폰으로 예매하셔야 합니다.
* 3월, 4월공연관람을 원하실 경우 별도로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 05. 24(화) 5월의 바람 - 바드

★ 06. 21(화) 시네마 파라다이스 - 멀티그룹 뮤

★ 09. 20(화) 고블린파티 in 울산 - 고블린파티

★ 10. 18(화) You can see Music - 설경철 & 트리오 아토

★ 11. 22(화) 이탈리아와인과 오페라 - 이승훈과 음악친구들

★ 12. 20(화) Take Five(재즈렉처콘서트) - 리처드 로 & 고희안

04

조기예매공연

★ 8. 20(토)~21(일) 호두까기인형(아이스발레)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단

(조기예매기간 연장 : 1.25~4.29 유료회원 40%, 무료회원 20%)



04



10



16

Contents

Special Performance

- 04 기획공연 I 뮤지컬 '레베카'
- 05 기획공연 II 연극 '에쿠우스'
- 08 기획공연 III 2016년 4월 모닝콘서트 앙상블 나인의 '모바일 클래식'

Special Exhibition

- 10 기획전시 초청기획전시 '한국 미술 특별전'

Art & Performance

- 12 울산시립합창단 해설이 있는 음악회
세계의 민속음악 여행 - 미국합창음악의 밤
- 14 울산시립교향악단 Majestic Series 2016 교향악축제 참가 기념 연주회
- 16 울산시립무용단 2016 타타타

Art & Story

- 18 예술을 말하다 I 뮤지컬로 만나는 프랑스의 이모저모
- 22 예술을 말하다 II 로마의 유산 <풍 뒤 가르>
- 25 예술을 말하다 III 일 트로바토레 II Trovatore
- 30 김진홍의 이탈리아 통신 라 페니체 극장(La Fenice)

Information

- 34 4월 공연 · 전시 가이드
- 39 4월 공연 · 전시 일정
- 43 울산문화예술회관 Arts Friend 회원 가입 안내



작품성과 흥행성을 두루 갖춘 완벽한 로맨틱 스릴러 뮤지컬! 뮤지컬 ‘레베카’

- 일 시 2016. 4. 2.(Sat) ~ 4. 3.(Sun) 15:00, 19:00 총 4회(공연시간 170분, 휴식 20분)
장 소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등급 만 7세 이상 관람가
티켓 V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유료회원 10%)
문의 052-275-9623, www.ucac.or.kr / 1544-1555, ticket.interpark.com

웰메이드 대작 뮤지컬 ‘레베카’의 화려한 귀환

뮤지컬 ‘레베카’는 ‘엘리자벳’, ‘모차르트!’, ‘마리 앙투아네트’로 한국 뮤지컬 팬들에게도 익숙한 미하엘쿤체와 실베스터 르베이 콤비가 만든 작품으로 1938년 출간된 대프니 듀 모리에가 쓴 동명의 베스트셀러와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레베카’를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2006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라이문트극장(Raimund Theater)에서 초연되었으며 3년 동안 전 석 매진을 기록해 “원작을 뛰어넘는 뮤지컬의 탄생”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 후 일본, 러시아, 헝가리, 독일, 스위스 등에서 공연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특히 한국의 ‘레베카’는 음악과 대본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한국의 제작팀이 새롭게 창작하여 기존의 라이선스 뮤지컬과는 격이 다른 무대를 선보인다.

최강 캐스팅

류정환, 민영기, 송창의, 차지연, 장은아, 김보경, 송상은 등 가창력과 연기력을 겸비한 최고의 캐스팅



불멸의 명작, 그 위대함을 다시 만난다!

연극 '에쿠우스'

● **일시** 2016. 4. 15.(Fri) 19:30 / 4. 16.(Sat) 15:00, 19:00 총 3회(공연시간 120분, 휴식 10분)
장소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등급 17세 이상 관람가(고등학생 이상)
티켓 전석 3만원 (유료회원 30%, 무료회원 10%, 단체 20%)
문의 052-275-9623 www.ucac.or.kr

연극 <에쿠우스>가 한국 공연 40주년을 기념하며 다시 한 번 공연에 돌입한다.

현존하는 최고의 극작가 피터 쉐퍼의 대표작으로 영국에서 말의 눈을 쇠꼬챙이로 찌른 소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시대가 지나도 변치 않는 신, 인간, 섹스에 대한 고민과 인간의 잠재된 욕망에 대해 치밀한 구성으로 초연 이후 4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관객의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에쿠우스>의 한국무대는 1975년 실험극장 윤니동 소극장에서 다이사트역 김동훈, 이승호와 알런역 강태기 출연으로 초연을 올렸다. 이후 알런역으로 출연했던 송승환, 최재성, 최민식, 조재현 등은 연기파 배우로 인정받았다. 최고의 배우를 탄생시킨 <에쿠우스> 계보를 잇는 캐스팅과 열정이 넘치는 무대는 공연 때마다 화제를 모으며 관객의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





에쿠우스와 함께한 전설의 배우들이 만났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캐스팅!

알런에서 다이사트까지, 에쿠우스의 레전드 조재현!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기대되는 유망주 김윤호!

마성과 청순이 교차하는 질 메이슨, 김예림!

연륜이 묻어나는 실험극장 단원 및 새롭게 합류한 명품 배우들과 함께 하는

환상적인 앙상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강렬한 감동! 세계적인 극작가 피터쉴퍼의 대표작!

1974년 런던 초연, 1975년 한국 초연! 4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희대의 명작!

매혹적인 무대와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치밀한 스토리!

시대를 초월해 영원불변한 인간의 본질을 건드리는 물음!

그 위대한 역사는 계속된다!



오랜 시간 에쿠우스 재공연을 올리며 작품 느낌을 가장 잘 만들어 내는 극단 실험극장 대표이자 연출 이한승과 알런과 다이사트, 그리고 2010년 공연의 연출까지 맡아 누구보다 에쿠우스와 인연이 많은 (주)수현재컴퍼니의 대표이자 배우 조재현은 40년 역사의 완결판을 보여주기 위해 공동제작을 진행한다고 밝혀 연출은 물론 배우의 해석에 따라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에쿠우스>의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동안 출연했던 배우들의 환상적인 앙상블로 폭발적인 무대를 만들 예정이다. 마흔의 나이에 알런 역으로 열연했던 조재현은 지난 2009년에 이어 다시 한번 다이사트로 분한다. 알런에게 특유의 위트로 가볍게 다가가면서도 깊은 몰입도로 조재현만의 다이사트를 완벽하게 만들어 관객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그는 5년이 지난 지금 더욱 농익은 모습으로 돌아온다.



광기 어린 17세 소년 알런역의 김운호는 이번 공연에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신예 배우다. 서울예술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뮤지컬에 출연한 적 있으나 연극무대는 처음이다. 수현재컴퍼니 조재현대표는 "그동안 알런이 반항적인데 초점이 맞춰졌던 거에 반해 순수한 소년 감성을 부각시킬 새로운 알런이 탄생할 것"을 자신했다. 당시에는 아쉽게도 무대에서 만나지 못했지만 이후 오랜 시간 자신만의 알런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 온 결과로 이번 공연에서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정신과 의사 다이사트는 아이들을 치료하며 들던 회의감을 알런을 통해 직접 마주하게 된다. 단련되지 않은 순수한 열정이 부모의 왜곡된 사랑과 사회적 억압에 반해 광기로 물드는 알런을 보며 정상과 비정상의 범주에 대해 내적 혼란을 일으키고 그가 가진 기성세대의 상실과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사건의 전말이 다이사트와 알런의 불연속적인 대화를 통해 밝혀지는 과정은 독특한 무대 구조와 함께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극의 최절정인 알런의 포효는 관객들에게 뜨거운 전율을 선사하며 심금을 울린다.

※ 문예지에 사용된 이미지는 제작사 제공 이미지로 울산공연 출연진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출연진은 홈페이지(www.uc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4월 모닝콘서트, 잠든 클래식을 깨워라! 앙상블 나인의 '모바일 클래식'

- ● **일 시** 2016. 4. 19.(Tue) 11:00 (공연시간 70분, 휴식 없음)
장 소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 켓 전석 1만원 (유료회원 30%, 무료회원 10%, 단체 20%)
패키지 2차(5월 이후, 6회 공연) 2. 22~4. 19(유료회원 40%, 무료회원 20%)
문 의 052-275-9623 www.ucac.or.kr

앙상블 나인(Ensemble 9)

권오현 | 바이올린, 장현지 | 바이올린, 윤혜수 | 비올라, 김채경 | 첼로,
최정화 | 플룻, 권수현 | 오보에, 김건희 | 클라리넷, 곽예진 | 바순, 조윤희 | 호른

올해로 아홉 번째 해를 맞은 울산문화예술회관 모닝콘서트가 보다 다채로워지고 있다. <여덟 빛깔 무지개>라는 연간 시리즈 타이틀에서 표방하고 있듯이 다양한 장르의 색다른 공연들을 매월 선보이고 있다.

4월 공연에서는 앙상블 나인의 <모바일 클래식(Mobile Classic)>이 울산 관객들을 만난다. 앙상블 나인은 2015년에 창단한 현악4중주와 목관5중주가 합쳐진 9중주 편성의 팀이다. 클래식 음악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관객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젊은 앙상블이다. '클래식 나우(Classic Now)' 또는 '클래식 그 이상(Classic and More)'이라는 평가를 듣길 원하는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팀이다.



〈모바일 클래식〉은 10년 가까이 클래식 음악계에 만연한 판에 박힌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과감하게 탈피하였다. 구구한 설명이 없이도 음악 그 자체와 퍼포먼스만으로 클래식 음악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차원이 다른 경지를 보여준다. 클래식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모바일(mobile)’이란 단어가 공연 타이틀에 붙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움직임이 자유롭고’, ‘표정이 풍부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공연을 선보인다.



“연주자들이 무대에 입장해서 퇴장할 때까지 인사할 때를 빼놓고는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기존의 클래식 공연과는 완전히 다른 공연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클래식 음악이 그 자체로 완성된 훌륭한 요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쓸모있는 요리의 재료라고 생각해요. 이 재료들을 골라내고 우리만의 레시피로 새롭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클래식 아티스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이런 방법으로도 즐길 수 있구나하고 관객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저희는 목표를 이룬 겁니다.” 앙상블 나인의 리더 조운호(호른)의 말이 확신에 차 있다.

앙상블 나인이 현악사중주와 목관오중주로 나눠 연주 배틀을 벌이는 장면과 관객들을 참여시킨 지휘 퍼포먼스 등에서 그들의 개성이 물씬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앙상블 나인의 공연을 보고 나면 이전의 클래식 공연들이 ‘방안에서 꿈쩍도 못하는 답답한 유선전화’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이 야심찬 팀, ‘앙상블 나인 가치관’의 첫 머리에 새겨진 그들의 미션(Ensemble 9 Mission)은 이렇다. “잠든 클래식을 깨워라!”

공연은 4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70분간 진행되며, 예매는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 또는 전화(052-275-9623)를 통해 가능하다.

PROGRAM

- | | |
|--------------------------------------|--|
| 1 Wolfgang Amadeus Mozart | Le Nozze di Figaro Overture |
| 2 String Quartet vs Woodwind Quintet | Performance Battle |
| 3 Johann Strauss II | An der schönen blauen Donau |
| 4 Johann Sebastian Bach & Soojin Kim | Prelude B Rossette |
| 5 Giuseppe Verdi | Brindisi |
| 6 Emile Waldteufel | Les Patineurs Valse `The Skater's Waltz` |
| 7 Nikolai Rimsky-Korsakov | Flight of the Bumble-bee |

초청기획전시

한국 미술 특별전

전시기간 2016. 4. 23.(Sat) ~ 5. 14.(Sat), 22일간

전시장소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

전시내용 한국미술 유명작가 작품 총 50점 및 전시자료 120점 전시

굴지의 한국 근·현대미술 작품을 감상

당시 역사적 기록물인 생생한 사료를 한 공간에 모음

울산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전시를 제공하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마련코자 한국 근대미술을 이끌었던 박수근, 이중섭, 오지호 등의 작품에서 부터 세계 속에 자리 잡은 백남준, 윤형근, 이우환 등의 작품과 사료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한국 미술 특별전」을 4월 23일~5월 14일까지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근대미술이 확립되기 시작한 이후, 독자적인 한국미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작가들의 작품과 큰 발자취를 남긴 주요 전시회의 사료를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생생했던 감동과 우리화단의 열정에 대해 함께 되뇌고,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미술사적 의미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울산지역 전시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근대미술의 정착’이라는 테마로 김원, 박수근, 오지호, 이대원, 이마동, 이중섭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한국근대미술60년전〉, 〈근대를 보는 눈〉, 〈동양화 6대가전〉, 〈1950년대전〉, 〈이중섭전〉, 〈박수근전〉 등 굴지의 전시회 도록과 팸플릿, 보도자료 등 당시의 사료를 통해 당대의 시대상과 한국 근대미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01 남관작 사람들
02 김환기작 무제



박수근작 동네

두 번째 섹션은 ‘현대미술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에콜드 서울〉, 〈아방가르드전〉, 〈앵포르멜전〉, 〈현실과 발언〉 등 주요 그룹전의 작품들과 사료를 소개한다. 유럽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의 영향 아래 다양한 사조가 한국화단에 유입되었고, 시대에 반응한 우리화단은 우리의 전통을 회복하고 한국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한국미술이 국가적 위상을 견고히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계 유명한 비엔날레에 참여한 작가들의 자료들과 작품을 ‘한국미술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전시한다. 파리 비엔날레, 상파울로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등 세계 유명한 비엔날레의 당시 모습들과 〈국제현대채색석판화 미국전〉, 〈자연과 함께 런던전〉 등 우리미술과 서구 현대미술이 교류하였고, 진취적 발상으로 새로운 매체를 구사한 전위적인 미술가들에 의해 한국미술이 세계시장에 알려졌던 전시들을 재조명한다.

권옥연, 김원, 김은호, 김인승, 노수현, 도상봉, 박상옥, 박성환, 박수근, 박승무, 박영선, 변관식, 성재휴, 손일봉, 오지호, 이대원, 이마동, 이상범, 이종우, 임직순, 장우성, 작육진, 최영림, 허백련, 김창열, 김홍수, 박래현, 이두식, 이열, 이우환, 이응노, 전혁림, 하종현, 김기창, 김영주, 김환기, 남관, 윤형근 정상화, 하동철 작가만의 확실한 작품세계를 구축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장에서 직접 감상하며, 한국미술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미술은 시대를 반영한 거울이며 역사다. 삶에 고스란히 베어져 있는 민족적 정체성과 현실에 대한 인식은 작품의 토대가 되었으며, 기록물로 남겨져 있는 당시의 사료는 작품의 생생함을 더 해준다. 이번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는 「한국 미술 특별전」은 한국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여 근·현대미술을 되돌아보고 한국미술의 미래와 비전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영림작 여인

해설이 있는
음악회 II

세계의 민속음악

여행

미국 합창음악의 밤

The Night of
American Choral Music



지휘자/ 민인기



지휘자/ Peter Park

AMERICA

INFORMATION

일시 2016. 4. 7.(Thur), 20:00
장소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지휘 민인기
출연 美 Dolce Canto합창단
티켓 전석 7천원
관람등급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할인적용 (회원 30%, 단체 20% 할인적용 등)



울산시립합창단



美 Dolce Canto합창단

미국 Dolce Canto 합창단을 초청하여 시립합창단과 함께 미국 합창음악의 밤을 선보이고자 한다.

해설이 있는 음악회의 특징은 기존의 합창곡이 아닌 단원들 개개인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창과 중창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상, 하반기 각 2회씩 합창의 저변확대와 관객개발을 목표로 기획한 연주회이다. 클래식 경직된 선입견을 벗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6년 첫 번째 해설이 있는 음악회 공연은 해설과 영상을 곁들여 음악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클래식 음악회의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민간에서 전해 내려져오는 음악과 서민들이 소박한 정서를 솔직히 담아낸 세계의 민속 음악들을 만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미국 Dolce Canto 합창단을 초청하여 시립합창단과 함께 미국 합창음악의 밤을 선보이고자 한다.

P.R.O.G.R.A.M

美 Dolce Canto합창단 Peter Park

- Rorando coeli / Jan Campanus Vodnansky
- Sanctus / Craig Courtney
- Down in the River to Pray (Traditional American Song)
/ arr. David L. Mennicke
- I'm Going Home (Traditional American Hymn)

울산시립합창단 민인기

- Water night / Eric Whitacre
- Recommendation / Vivian Fung
- An die Freude / Randall Stroope

美 Dolce Canto합창단 Peter Park

- Up Above My Head (Traditional American Song)
/ arr. Randal Swiggum
- The Stars Still Shine / John Muehleisen
- Unclouded Day
/ Josiah K. Alwood arr. Shaun Kirchner

울산시립합창단 민인기

- Caritas et Amor / Randall Stroope
- Little Bird / Eric Whitacre
- The battle of Jericro / arr. M. hogan

美 Dolce Canto합창단 Peter Park

- Monroe Crossing: Selections to be announced
from stage
- The World Beloved: A Bluegrass Mass
/ Carol Barnett
- 3. Ballad & First Verse soloist: Caitlin Hepburn
- 4. Gloria
- 7. Sanctus

울산시립합창단 & 美 Dolce Canto합창단

. 민인기 · Peter Park

- Wade in the water (American Spiritual) / arr. J.B. Lyle
- Arirang / arr. 우효원

울산시립교향악단

MAJESTIC SERIES

2016 교향악축제 참가 기념 연주회

2016. 4. 8(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김홍재

울산시립교향악단 MAJESTIC SERIES 두 번째 시간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선사하는 마제스틱 시리즈(Majestic series) 두 번째 시간으로 4월 5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선보인 프로그램으로 울산을 찾는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이 참가하여 실력을 가늠하는 자리인 '교향악축제'에 1992년 이후 18번째로 참가한 울산시립교향악단은 개막연주 초청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다채로운 음색, 탄탄한 테크닉, 특유의 섬세함과 음악적 개성을 지닌 피아니스트 한상일

부산 음악 콩쿠르, 동아 음악 콩쿠르, 2005년 KBS 서울 신인 음악 콩쿠르 등 국내 주요 콩쿠르에서 모두 1위 및 대상을 잇달아 석권하며 일찍이 한국 음악계의 재목으로 주목 받았다. 또한 2011년 세계적 권위인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F. Busoni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taly)에서 마지막 12명의 파이널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피아니스트 백건우로부터 '본인만의 뚜렷한 개성 있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라는 평을 받았다.



피아노/ 한상일

교향곡 최초로 오르간이 오케스트라에 편성,

청중을 사로 잡는 웅장한 연주 생상 교향곡 제3번 "오르간"

1886년 생상이 발표한 제3번 교향곡 "오르간"은 교향곡 최초로 오르간이 오케스트라에 편성되어 관현악과 더불어 웅장한 연주로 청중을 사로잡는다. 생상의 5개 교향곡중 단연 최고로 손꼽히는 이 작품은 마치 거대한 음악의 건축물을 연상케 하며, 프랑스의 전통적인 화려함과 우아함, 다채로움이 극치를 이루는 명곡이라 할 수 있다.

MAJESTIC SERIES

P.R.O.G.R.A.M

뒤카 / 교향시 "마법사의 제자"

Dukas / Symphony poem "The sorcerer's Apprentice"

프로코피예프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다단조 작품26

Prokofiev / Piano Concerto No.3 in C Major Op.26

피아노-한상일(Piano / Han sang-il)

생상 / 교향곡 제3번 다단조 작품78 "오르간"

Saint Saens / Symphonic No.3 in c minor Op.78 "ORGAN"

INFORMATION



일 시 2016. 4. 8.(Fri), 20:00

장 소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 휘 김홍재

피아노 한상일

티 켓 V석 2만원, R석 1만5천원

S석 1만원, A석 7천원

할인적용 회원(30%), 초·중·고생(50%),
단체 10인 이상(20%)

울산시립
무용단

2016

한국의 리듬과
몸짓의 향연!

타타타



예술감독/ 김상덕



음악감독/ 최소리



카타



동해누리



내드름연희단



태화루예술단



버슴새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린다! 타 · 타 · 타!

잊지 못할 대규모 타악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타악 퍼포먼스의 진수를 선사하는 세계적인 타악주자 최소리 음악감독,
예술과 과학의 융합으로 소리와 빛의 하모니를 선사하는 IT국악밴드 카타,
동해누리 · 내드름연희단 · 태화루예술단 · 버숨새 등 지역 대표 소리패들가
함께 완성하는 **대규모 타악 퍼포먼스가 온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북소리가 음악이 되고 두드림이 춤이 되는 통쾌한 무대!!

다이나믹하고 웅장한 무대 구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울산시립무용단 <한국의 리듬과 몸짓의 향연_타타타> 시리즈 공연이 세계적인 타악연주자 최소리 감독과 함께 한층 업그레이드된 <2016 타타타>로 오는 4월 28일(목)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기존과는 색다른 무대를 선사할 <2016 타타타>의 최소리 음악감독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204개국을 순회한 월드투어 탈(TAL)의 총감독을 역임하였으며, 인천 아시안게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광주우아시안게임, 밴쿠버 동계올림픽 등 세계인의 축제 무대에서 주요 문화행사의 연출 및 음악감독으로 성공적인 작품을 펼쳐보이고 세계 속에 한국 타악의 흥과 매력을 알리며 찬사를 받았다. 또한 2012, 2013 국가브랜드 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최정상급 타악연주자로 인정받았으며, 현재도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악, LED빛,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스마트한 감성음악을 선사하는 IT국악밴드 '카타'와 '동해누리', '내드름연희단', '태화루예술단', '버숨새' 등 지역을 대표하는 타악 단체 및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단순하면서도 역동적이고, 웅장하면서도 진한 감동과 여운이 있는 타악퍼포먼스의 진수를 선사한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북소리가 시원한 음악이 되고, 심 없이 두드리고 두드리는 역동적인 안무가 아름다운 춤이 되어 활력 넘치는 무대가 될 이번 공연은 드론과 굴삭기가 무대에 등장하는 다이나믹한 오프닝을 시작으로 모듬북과 드림을 융용하여 북의 목직함과 심벌즈의 경쾌함으로 표현하는 '변민', 여러 대의 기타를 변형해서 들려주는 '소리금', 전통사물의 악기 중에 하나인 운판을 현시대에 맞게 재구성한 '타심', 빠른 휘모리

가락을 변형시켜 강한 비트와 리듬을 교차하면서 역동적인 몸짓과 여러 가지 타법을 접목한 '리듬모리'와 수천 마리의 말들이 넓은 광야를 내달리듯 때로는 질서있게 때로는 자유롭게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물유희 '물드럼 칠채' 등으로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끈다.

2013년 첫 선을 보인 후, 매 공연 매진사례를 이어가며 울산시립무용단의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의 리듬과 몸짓의 향연_타타타>는 한국 타악의 역동적인 리듬과 전통무용의 예술적인 몸짓이 조화를 이루며 작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대적 감각에 맞는 전통문화의 참신한 무대 작품화를 통해 순수 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를 잇는 새로운 문화콘텐츠 발굴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최대 규모의 타악 퍼포먼스로 타악이 가진 매력을 눈과 귀, 온 몸과 마음으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이번 무대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P.R.O.G.R.A.M

프로로그(오프닝)	번민
동방의 빛	소리금
물드럼칠채	타심
리듬모리	아리랑파티

INFORMATION

일 시	2016. 4. 28.(Thur), 20:00
장 소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관람등급	만 5세 이상 관람가

뮤지컬로 만나는 프랑스의 이모저모

FRANCE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행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도시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미술에서 음식, 패션, 건축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매력은 넘쳐나죠. 그런데 가끔은 책과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 프랑스가 아름답다고 세뇌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낭만적으로 담아낸 프랑스를 보며 우리 역시 프랑스에 대한 로망을 키우니까요.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올해 프랑스와 한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공연장에서도 프랑스에서 제작됐거나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잇달아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2회에 걸쳐 뮤지컬 작품 속에 담긴 프랑스의 모습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먼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무대에 옮긴 뮤지컬부터 살펴보죠.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중 'Belle' (출처 마스트엔터테인먼트)

가장 프랑스다운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을 무대화한 것입니다. 지난 1998년 프랑스 파리에서 초연됐는데요. 영미권 뮤지컬이 주를 이루던 시절 흥행에 성공하며 프랑스 국민 뮤지컬로 자리매김했죠. 노트르담 대성당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매혹적인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와 그녀를 사랑한 세 남자, 꿈추 종지기 콰지모도, 근위대장 페뷔스, 성직자 프롤로의 사랑 이야기면서 동시에 당시 혼란스러웠던 사회상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공연장에 들어서면 무대 전면에 들어찬 성당 벽면을 상징하는 무대 세트에 놀라게 되는데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출처 마스트엔터테인먼트)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내부

극이 전개되면서 만나는 무대 장치는 오히려 단순하지만, 장면을 형상화한 수준 높은 안무와 조명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음악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OST는 17주 동안 프랑스 내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천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에스메랄다를 향한 세 남자의 사랑을 표현한 'Belle(아름답다)'는 프랑스 차트에서 44주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모든 멤버들이 연속극 OST처럼 귀에 착착 감깁니다.

이 작품의 배경인 노트르담 대성당은 파리를 관통하는 세느 강에 떠 있는 시테 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163년에 착공해 1320년에 완성됐습니다. 길이 130m, 폭 48m, 높이 35m로 약 6천5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12세기 고딕 건축물의 최고봉으로 꼽히죠. 종교중심의 사회였던 당시에는 높고 뾰족한 고딕양식의 건축물을 통해 하늘에 닿으려는 마음을 담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 로마네스크양식의 건축물이 안전을 생각해 낮고 벽체가 두꺼웠다면 고딕양식의 건축물들은 높고 긴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리버 보울트 구조의 천장으로 벽체에 전해지는 무게를 분산했고, 플라잉 버틀레스라는 외부 버팀목으로 하중을 버티게 했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역할에서 좀 더 자유로워진 벽면에는 장미창 같은 거대하고 화려한 창문을 낼 수 있었고요. 그 고딕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바로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인데요. 보통 여행객들은

노트르담 대성당의 정면만 보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난 다리를 건너 성당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아야 이 성당의 화려한 면모를 모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내외부에는 유난히 조각과 그림, 모자이크, 부조들이 많은데, 중세시대에는 왕족이나 귀족, 성직자만 글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그림과 조각으로 성경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성당 입구에는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최후의 심판 문'으로 불리는 중앙 문의 상부에는 지옥의 사자가 죄의 무게를 저울질해서 덕행이 많은 사람은 왼쪽 천사의 편으로, 악행이 많은 사람은 밧줄에 묶여 오른쪽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종탑은 무게가 무려 13톤이나 되는데, 바로 카지모도가 올렸던 '임마누엘(Emmanuel)'이라는 종입니다. 프랑스혁명 때는 종교적인 의의보다 이성이 중시되며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과 조각이 파괴되고, 내부는 창고로 쓰이는 등 크게 파손돼 철거까지 얘기됐는데요. 1831년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로 다시 조명을 받으며 복원을 위한 모금운동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성당 내부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여행객들도 미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데요. 관광명소인 만큼 성수기에는 입장까지 긴 줄을 서야 합니다. 이 성당의 내외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받는 감동과 재미도 훨씬 커질 겁니다.



프랑스 파리 상주 다리, 뒤편은 프랑스 혁명 당시 감옥으로 사용됐던 콩시에르주리

영국에서 제작된 뮤지컬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의 또 다른 인기 작품은 바로 1862년에 발표된 <레미제라블>이죠. 하지만 뮤지컬은 프랑스가 아닌 영국에서 먼저 제작됐습니다. 지난 1985년 10월 8일 영국 런던에서 초연된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30년간 공연되고 있는 세계 최장수 뮤지컬로, 전 세계 44개국, 319개 도시에서 22개 언어로 공연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어인 '레미제라블'은 '비참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썼을까요? 이 작품의 사회적인 배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죄로 노역형에 처해졌다 19년 만에 가석방된 죄수번호 24601 장발장은 어디를 가든지 전과자로 불리며 불합리한 대우와 멸시를 받습니다.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주교. 하지만 장발장은 성당에서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다 붙잡히죠. 그러나 주교는 은식기를 선물로 줬다며 장발장을 용서하는데, 이에 크게 감동한 장발장은 새로운 삶을 결심합니다. 이후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사는 장발장은 공장주인, 시장으로 성공하는데요. 자신의 공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뒤 숨진 여직공 판틴의 사생아 코제트를 맡아 키우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숙녀가 된 코제트는 마리우스라는 학생과 사랑에 빠지는데요. 프랑스 대혁명으로 수립된 공화정이 무너지고 나폴레옹 시대를 거친 프랑스 사회는 오랜 전쟁에 지쳐 다시 왕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고, 사회는 또 다시

혁명 전으로 돌아가는 듯 했죠. 특히 공화주의자들의 존경을 받던 정치가 라마르크가 사망하자 학생들은 또 한번의 혁명을 계획하는데요.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30년이 지난 1832년 여름, 파리 시내에서 일어난 이 봉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파리 학생과 시민들은 바리케이트를 세우고 정부군과 충돌하는데요.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도 이 바리케이트 앞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결의를 다지는 모습, 1막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One day more(내일로)'입니다. 실제 파리에서는 퐁피두센터를 지나 서쪽으로 이동하면 <레미제라블>의 주요 배경으로 당시 빈민가가 있던 보부르 지구가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마리우스가 이 시위에 참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살게 하고 자신을 데려가라'며 신께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일부러 혁명군에 가담해 정부군과의 충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마리우스를 구한 뒤 코제트와 결혼할 수 있게 돕습니다. 오래 전 주교의 용서와 자애로움이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죠. 그런가하면 <레미제라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가련한 사람은 바로 경찰대장 자베르일 텐데요. 자베르는 '사람의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가석방된 장발장을 평생 추적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잡힌 자신을 다름 아닌 장발장이 구해 살려주자 평생의 신념이 무너진 것에 비관해 세느강에 스스로 몸을 던지죠. 앞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배경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파리 시테섬에 있다고 했는데요. 프랑스 경찰청 역시 시테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사를 보니 자베르는 시테섬 북쪽, 경찰청 인근 상주 다리에서 세느강에 몸을 던졌을 거라고 적혀 있더군요. 재밌는 발상입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오리지널 버전은 영국 런던의 웨스트엔드에 가야 볼 수 있지만, 그 배경은 프랑스 파리입니다. 프랑스의 역사를 이해하고 뮤지컬을 보면 그 감동이 더해질 테고, 파리를 여행할 때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된 장소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뮤지컬 작품에 담긴 프랑스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 됩니다.

글/ 윤하정

뮤지컬 '레미제라블' (출처 레미제라블코리아)



뮤지컬 '레미제라블' 중 'One Day More'



로마의 유산 <풍 뒤 가르>



<풍 뒤 가르>, 기원전 1세기, 프랑스

전성기 로마 제국의 영토는 방대했습니다. 오늘날을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지중해 동부, 심지어 이스라엘 지역까지도 모두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를 거꾸로 보면 그만큼 로마 제국의 도로망이 발달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 건축과 토목, 도시 설계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로마인들은 식민지 정복 활동을 하면서 도시를 새로 건설할 때, 매년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을 개발했고 이는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황무지나 다름없던 곳도, 이를 통해 로마의 문명을 누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엑스 니hil로(ex nihilo)”는 “무(無)에서”라는 뜻의 라틴어 구절인데, 로마의 식민 도시 건설을 수식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로마인들이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남북(카르도 막시무스)과 동서(데쿠마누스 막시무스)를 가로지르는 큰 도로의 위치를 잡습니다. 이것이 도시의 중심축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공간을 격자형으로 잘게 쪼개 직선의 길을 만들고 그 사이로는 건물들을 짓습니다. 도시에 필요한 핵심 기반 시설들이 자리 잡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편리한 새로운 로마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어디를 가나 비슷했고, 이런 로마식 도시 생활을 통해 다양한 민족들은 점차 ‘로마인’ 으로서의 정체성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도시를 보면, 오늘날의 도시와 큰 차이가 없어



위베르 로베르, 〈퐁 뒤 가르〉, 1787.
캔버스에 유채, 2.42 x 2.42 m, 루브르 미술관

보이기도 합니다. 각종 관공서(포룸, 바실리카)와 오락시설(콜로세움 같은 경기장, 극장, 목욕탕)도 있었고, 도시 곳곳에는 기념물이 즐비했으니까요. 심지어는 도시로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주상복합형 아파트(‘인슐라’라고 합니다)도 세워졌습니다.

이런 큰 도시를 유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원활한 물의 공급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수도꼭지를 열면 맑은 물이 나오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물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고대 4대 문명이 모두 강을 끼고 발전한 것을 보더라도 물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 작을 때는 주변을 흐르는 강이나 우물, 샘 등으로 물을 충당할 수 있겠지만, 점점 도시가 커지면서 더 많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수로를 이용해 인근의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때로는 산이나 계곡을 가로질러야 했는데, 그럴 때는 다리의 일종인 수로교(aqueduct)를 만들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다보면 아직도 곳곳에서 이런 수로 유적이 보이는데,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는 프랑스 남부 님(Nîmes) 지방에 있는 〈퐁 뒤 가르(Pont du Gard)〉가 있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잘 보존된 다리로 평가받고 있는데, 가장 아름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기능과 아름다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이지요.

‘가르(동) 강의 다리’라는 뜻의 〈퐁 뒤 가르〉는 이 지방이 로마의 식민지이던 기원후 1세기에 지어진 수로교입니다. 님(당시 이름은 네마우수스)에는 물이 충분치 않아서 위제 지역에서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두 지점은 직선거리로는 12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지만,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50킬로미터나 빙 돌아와야 했고, 그 중간에는 가르동 강이 있어서 수로교를 세워야 했습니다.

로마 건축의 특징인 원형 아치를 이용한 다리는 총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은 맨 위에 있는 수로를 따라 이동했는데, 여기에는 다른 특별한 장치가 없습니다. 단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물의 성질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맨 위 수로의 길이는 360미터에 이르는데,



다리 건설 과정을 보여주는
퐁 뒤 가르 박물관의 모습

양쪽의 높이 차는 17미터에 불과합니다. 즉 <퐁 뒤 가르>의 수로의 경사는 아주 미세해서 눈치 채기는 쉽지 않을 정도이고, 로마의 토목 기술이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면 물도 천천히 흐르고, 그러면 수압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수로교에 미치는 하중도 아주 크지 않을 것이고요, 위제의 수원지부터 남의 저수지까지 물이 이동하는데 평균 24시간에서 30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속도를 계산하면 초당 0.7에서 1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양으로 보면 일일 3만 5천에서 4만 세제곱미터, 초당 400리터 정도의 물이 흘렀습니다. 이 물은 우선 시내 외곽의 저수지에 저장되었고, 이곳에서 파이프를 통해 시내 곳곳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높이 49미터, 길이가 360미터에 달하는 <퐁 뒤 가르>는 수천 년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아직도 그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예술의 경지에 오른 로마인들의 뛰어난 토목 기술 수준을 짐작케 합니다. 물론 수로교 본래의 기능으로 쓰인 기간은 이후 몇 백 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석회석으로 만든 다리에는 점차 침전물이 쌓였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식물 뿌리가 석벽을 뚫고 들어와 물이 새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아래쪽 부분만을 강 양편을 연결하는 교각으로 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에 들어, 고대 유산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이를 보호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퐁 뒤 가르>는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화가 위베르 로베르(Hubert Robert)에게 프랑스 남부에 있는 로마 유적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로마에서 오랜 시간 수학한 그는 ‘폐허의 로베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고대 유적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가 그린 <퐁 뒤 가르>를 보면, 석양을 받은 로마 유적의 모습이 매우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후 19세기에도 수차례 복원 작업이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발달된 문명의 증거인 <퐁 뒤 가르>는 198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최근에는 박물관도 문을 열어 고대 로마의 유적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 황주영



일 트로바토레 (사진출처: 아레나 디 베로나)

일 트로바토레 Il Trovat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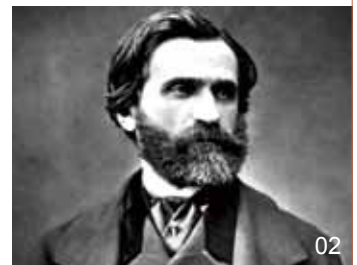
‘일 트로바토레’는 베르디의 오페라 중 초기에서 중기로 이행하는 시기의 대표작이며 베르디의 모든 오페라를 통틀어 가장 박력 넘치는 작품이다. ‘트루바두르(Trovatore)’란 유럽의 중세시대에는 각국의 봉건 제후들의 성을 넘나들면서 주로 로맨틱한 서사시를 루트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하거나 자작시를 낭송하는 ‘음유시인’이다. 이들은 예술창작 뿐 아니라 무예에도 두루 능해서 기사계급에 속했다. 낭만시대에는 이들을 소재로 한 문학이 대유행을 했다.

| 원 작 |

베르디는 오페라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서 당대의 최신 희곡을 늘 주목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스페인의 위대한 낭만주의 극작가 구티에레스(Antonio Gutierrez 1812 ~1884)가 1836년에 발표한 ‘엘 트로바도르 El Trovatore’에 관심을 갖게 된다. 1843년 발표한 베르디의 또 다른 걸작 ‘시몬 보카네그라’도 구티에레스 원작이다. 베르디는 이 원작을 몇 번씩이나 읽으면서 감동적인 내용과 상황의 설정에서 강렬한



01



02

01 안토니오 구티에레스

02 베르디



일 트로바토레 (사진출처:마린스키극장)



살바토레 캄마라노



1847년 당시 로마 아폴로극장 내부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원작의 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를 않아, 이전에 자신의 오페라 '알지라', '레냐노 전투', '루이자 밀러'의 대본을 썼던 대본가 캄마라노(Salvatore Cammarano 1801~1852)와 상당 기간의 논의를 한 끝에 이 작품의 오페라화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캄마라노는 대본은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된다. 캄마라노의 뒤를 이어 젊은 작곡가 바르다레(Emmanuele Bardale)가 캄마라노의 유고를 바탕으로 대본을 완성하였다. 훌륭한 대본가였던 캄마라노가 세상을 떠난 후 유가족들이 가난에 허덕이는 것을 알게된 베르디는 본래 계약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유족들에게 지급하였다.

초연의 대성공과 오페라의 특징

베르디는 1852년 12월말 작곡을 완성하였고, 이듬해 1월 지금은 사라진 로마 아폴로극장에서 베르디 자신의 지휘로 초연하여 대성공을 거둔다. 베르디는 로마 초연 4년 후 스코어의 일부를 수정하고 발레를 추가하여 파리에서 초연하였다(파리버전 'Le trouvère').

이 오페라는 언뜻 보기에는 호쾌하고 장대한 합창들, 설 새 없이 흐르는 주역들의 아름다운 아리아와 중창 등으로 해서 단번에 작곡한 듯한 인상을 풍기지만 음악적으로는 상당히 다듬어진 작품이다.

전작 '리골레토'가 종래의 오페라 방식이 아닌 드라마 대사와 음악의 조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일 트로바토레'는 과거로 회귀하여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설정되어있는 전통적인 벨칸토 방식에 충실한 오페라이다. '일 트로바토레'는 결코 창의적이지는 않으나, 필요하다면 고난이도의 기교 위주 성악기법까지 모두 사용하면서 벨칸토 오페라의 위력을 남김없이 끌어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카바티나와 카발레타의 명확한 이분법적인 구조, 치열하게 감정을 주고받는 중창과 장대한 합창, 4주인공들 모두 열정적이 캐릭터에 상응하는 노래가 골고루 등장한다. '나부코', '에르나니'가 이런 방식의 선구작이었다. 같은 해 작곡된 '일 트로바토레'와 '라 트라비아타' 이후에는 베르디 작품에서

구식 벨칸토 아리아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새로운 그랜드 오페라 방식으로 나아간다.

장면 설정 또한 훌륭하여 4막1장에 등장하는 '미제레제' 장면은 이탈리아 오페라 중 최고의 장면으로 꼽힌다. '일 트로바토레'에 나오는 테너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가 배경으로 흐르는 기법, 합창이 배경으로 흐르는 방식 등은 이후 '라 트라비아타', '시몬 보카네그라' 에서도 등장한다.

| 스토리의 묘미 |

이 오페라는 초연 당시부터 대본의 전개가 비현실적이고 복잡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비난도 있었다. 하지만 집시, 마녀, 화형, 유괴, 납치 등이 등장하는 '일 트로바토레'의 내용은 중세 유럽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사건들이었다. 또한 주인공들 끼리 이리저리 엮이는 내용은 베르디가 오페라 속에서 다양한 음악어법을 사용하여 극적으로 풍부하고 선율적으로 화려한 음악을 표현하기에는 더할 나위없는 적합한 내용이다.

이 희곡은 역사 속의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15세기초 아라곤 왕위계승 전쟁이라는 실제 역사를 모델로 허구의 이야기를 첨가하여 재미를 더하고 있었다. 때는 15세기, 장소는 스페인의 비스케이와 아라곤이다. 무대의 중심이 되는 루나 백작의 성은 사라고사에 있는 알라페리아 궁전이다. 구티에레스의 작품이 발표된 이후부터는 알라페리아 궁전 한쪽 높은 탑을 '트로바토레 타워'라고 부른다.

| 오페라 이전의 이야기 |

아라곤 공국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다. 아라곤 공국의 선대 루나백작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수상한 집시노파가 백작의 어린 아들 방을 기웃거린 일이 있었고 그 이후 어린 아들은 점점 쇠약해졌다. 선대 백작은 이를 수상한 집시노파의 탓으로 돌리고 그녀를 마녀라는 누명을 씌어 화형에 처했다. 그날 밤 백작의 어린 아들도 사라졌다.

집시노파에게는 아주체나라는 딸이 있었다. 어머니의 누명을 알게 된 아주체나는 백작의 작은 아들을 몰래 납치하여 어머니와 맞바꿀 계획이었으나 이미 늦었다. 집시노파는 불길 속에서 죽어가면서 딸에게 복수를 당부하였다. 불길에 타죽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주체나는 복수심에 불타 납치한 백작의 작은 아들을 불길 속에 던져 버렸다.

01 알라페리아 성 트로바토레 타워

02 아주체나: 피오렌차 코스토

03 레오노라역: 마리아 칼라스



01



02



03



01



02



03

- 01 중세 전형적인
트로바토레 페르디곤
- 02 '일 트로바토레' 악보 초판본,
리코르디 출판사
- 03 알라페리아 성 전경

그러나 이성을 잃었던 아주체나는 백작의 아들 대신 자기의 딸을 불길 속으로 던졌던 것이다. 집시 노파의 화형 후 잿더미에서 사라진 백작의 어린 아들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아주체나는 선대 백작의 어린 아들을 온갖 사랑을 쏟으면서 키웠고, 그가 만리코이다.

한편, 세월이 흘러 선대 루나백작은 큰아들에게 동생을 찾으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선대 백작의 큰 아들이 루나백작으로서 아라곤 성주가 되어 군대를 이끈다. 당시 아라곤공국은 이웃 비스케이공국과 영토 문제를 놓고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만리코는 어머니 아주체나가 철전지 원수로

생각하며 집시들을 멸시하는 아라곤을 무너뜨리기 위해 동료 집시들과 함께 비스케이 군에 합류한다.

어느 날 궁성의 무술시합에 참가하여 실력을 알린 이름 모를 기사(만리코= 트로바토레)와 지체 높은 귀족숙녀 레오노라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아라곤의 성주 루나백작 또한 레오노라를 사랑한다. 요약하면 현재의 루나백작과 만리코가 형제간이이며 아울러 레오노라를 두고 서로 연적이다. 여기서부터 오페라가 시작된다, 북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도입부는 이 오페라의 비극적인 내용을 압축하여 암시해 주는 것이다.

줄거리

제1막 결투

제1장 알라페리아 성의 성문 앞, 밤 : 병사들은 루나백작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 노병 페란도(베이스)가 위병들이 줄지 않도록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준다. 위에서 설명한 선대 백작 시절 집시노파의 화형과 백작 아들이 사라진 사실, 현재 루나 백작(바리톤)은 지금도 동생의 행방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다. 모두 무서워한다.

제2장 성의 정원, 밤 : 정원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성이는 레오노라(소프라노)는 시녀에게 무술시합에서 만난 어떤 트로바토레(만리코, 테너)를 사랑하게 된 경위를 얘기한다.

시녀는 불길한 사랑이라고 경고하지만 레오노라의 마음은 그리움으로 가득하다. 아직 연인이 보이지 않자 일단 안으로 들어간다. 이때 루나백작이 레오노라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자 그녀의 방 쪽으로 가는데 어디선가 트로바토레의 노래 소리가 들린다. 그 노래를 듣고 달려 나온 레오노라는 어둠 속에서 백작과 트로바토레를 착각한다. 영문을 모르는 트로바토레는 레오노라의 행동을 힐책하고 레오노라는 어둠 속에서 잘못 본 것이라고 사과한다. 질투심에 불타는 루나백작은 트로바토레의 신분이 적장 만리코임을 알게 된다. 루나백작과 만리코는 결투를 하러가고 레오노라는 기절한다.

제2막 집시

제1장 비스카야 산중, 새벽 : 집시들의 우렁찬 대장간의 합창이 들리면서 막이 오른다. 아주체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옛날 자기 모친이 화형당한 이야기를 한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아주체나가 자기자식을 불에 던졌다는 말을 하자 만리코는 그러면 자기는 누구냐고 하니 아주체나는 만리코는 자기아들이 틀림없다고 한다.

아주체나는 왜 결투에서 루나백작을 살려주었느냐고 물으니 만리코는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불가사의한 힘이 자신을 막았다고 한다. 이때 만리코가 죽은 줄 알고 레오노라가 수녀원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령이 전한다. 만리코는 레오노라를 구하기 위해 산을 내려간다.

제2장 수도원 뜰 : 루나백작 또한 레오노라를 납치하려한다. 레오노라를 둘러싼 수녀 일행이 온다. 백작은 혼자, 만리코는 부하들과 함께 마주하게 된다. 혼자인 백작은 중과부적으로 코 앞에서 레오노라를 납치당하고 분에 못이겨 복수를 맹세한다.

제3막 집시의 아들

제1장 루나백작 야영지 : 백작의 군사들이 내일의 총공세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고 용감한 합창을 부른다. 폐란도가 근처에서 서성이던 아주체나를 백작에게 끌고 온다. 이때 아주체나를 유심히 살피던 노병 폐란도가 그녀가 아이를 유괴한 집시임을 알아본다. 더욱이 아주체나의 절규로 만리코가 그의 아들임을 알게 되자 백작은 이제야 동생의 원수를 갚게 되었다고 쾌재를 부른다. 백작은 만리코를 피어내기 위해 성 앞의 화형대를 설치한다.

제2장 카스테를 성내 : 만리코와 레오노라가 결혼식을 올리고자 하는데 부하가 아주체나가 화형당할 위기에 처했음을 알려준다. 만리코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적진으로 돌진한다.

제4막 처형

제1장 탑이 보이는 성벽 아래 : 전투에 패하여 성안에 갇힌 만리코. 레오노라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만리코의 생명을 구하기로 결심한다. 레오노라의 행방을 몰라 장탄식하는 백작 앞에 레오노라가 등장하여 자신을 바칠테니 만리코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애원한다. 루나는 레오노라를 가지는 대신 만리코를 살려주기로 한다. 그러나 레오노라는 살짝 몰래 독약을 마시며 백작은 자기 시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중얼거린다.

제2장 성안의 감옥 : 아주체나와 만리코가 처형을 기다리는 중에 레오노라가 들어온다. 레오노라는 만리코에게 당신을 살렸으니 도망가라고 한다. 레오노라는 그 사이에 독이 올라 쓰러지고 잠시나마 레오노라의 행동을 의심한 만리코는 크게 자책한다. 이때 백작이 나타나 레오노라가 거짓말 한 것에 분노하면서 당장 만리코를 단두대로 끌고 가라고 명령한다. 잠에서 깨어난 아주체나가 만리코의 처형을 만류하지만 이미 늦었다. 감옥의 창으로 만리코가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체나는 미친 듯이 웃으며 백작보고 만리코가 당신 동생이라면서 어머니의 복수를 했다고 외치고 죽는다. 백작은 3명의 죽음을 한번에 당하면서 자신의 죄에 전율한다.

글/ 송종건

주요아리아

- ‘보라, 밤의 장막은 겹히고 Vedi le fosche notturne’
(2막 1장, 대장간 집시들의 합창)
- ‘불꽃은 타오르고 Stride la vampa’ (2막1장, 아주체나)
- ‘그대의 미소는 아름답고 Il balen del suo sorriso’
(2막2장, 루나백작)
- ‘타오르는 저 불길을 보라 Di quella pira’
(3막2장, 만리코)
- ‘사랑의 장밋빛 날개를 타고 D'amor sull'ali rosee’
(4막1장, 레오노라)

김진홍의 이탈리아 통신

라 페니체 극장(La Fenice)



이탈리아 여행 중 가장 인상에 남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누구나 베네치아라고 답할 것이다. 물 위에 지어진 도시, 미로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운하, 그사이로 유유히 지나가는 곤돌라가 이색적이며 낭만적인 인상을 준다.

특히 2월 카니발 축제 기간에 베네치아를 여행하게 된다면 화려한 의상과 특색 있는 가면을 쓴 사람들과 마주치게 된다. 세계의 여러 카니발 축제가 있는데 베네치아 가면 축제는 프랑스 니스 카니발 축제, 브라질의 리우 데자네이루 카니발 축제, 이탈리아 비아레쥬(Viareggio) 카니발 축제 등 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에 해당하며 이 기간에 관광객이 최고조에 이른다. 카니발은 이태리어로 Carnevale 라고 하는데 라틴어 Carnem Levare 에서 유래가 된 단어로 고기를 제거한다 없애다 라는 뜻이며 또는 Carne 와 Vale의 합성어로 고기여 안녕 이란 뜻으로도 추정된다. 카톨릭 국가에서 주로 성행하며 그리스도교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 고기를 마음껏 먹고 즐기는 축제이다.

베네치아의 중심인 산 마르코 광장에 위치한산 마르코 대성당(Basilica di San Marco)은 중세 건축물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서기 828년에 성인 마르코의 유골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베네치아로 옮겨 와 도시의 수호 성인으로 모시게 된 것을 기념하여 건축되었다.

동양의 비잔틴 건축 양식과 서양의 로마네스크 건축양식의 장점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베네치아 양식이라는 새로운 건축 양식을 만들었다. 외부는 5개의 아치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구가 있으며 그 위로4개의 청동 말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청동 말은 고대 그리스시대의 것으로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비잔티움(콘스탄티노플)에 옮겨놓은 것을 1204년에 베네치아로 가져온 것이다. 성당 외부와 내부에는 황금빛의

모자이크 벽화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데 주로 성인 마르코의 업적을 담은 내용이다.

산마르코 광장 한편에는 매일 클래식 음악이 라이브로 흘러나오는데 그 곳이 바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플로리안 카페(Caffe Florian)이다.

플로리안 카페는 플로리아노 프란체스코니가 1720년에 오픈하여 괴테, 고든 바이런 경, 카를로 골도니, 마르셀 프루스트, 찰스 디킨스 등 수 많은 문학과 예술가들이 사랑하던 장소이다. 내부는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풍스러운 그림들과 앤틱한 테이블과 의자 등이 그때 그 시대 모습 그대로 유지 운영하고 있다. 희대의 바람둥이 카사노바도 이 카페를 자주 들렀다고 한다.

산마르코 광장을 지나 300여 미터를 걸어가면 베네치아 페니체 극장 (Grande Teatro La Fenice) 이 위치해 있다.

La Fenice 극장은 이탈리아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 위치한 오페라 극장으로 역사적으로 이탈리아 오페라 극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극장이다. 19세기 오페라의 꽃을 이룬 시기에 롯시니(G. Rossini), 도니제티(G. Donizetti), 벨리니(V. Bellini) 그리고 베르디(G. Verdi)의 많은 작품이 이 곳에서 초연되었다. 20세기에는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ij),



브리튼(Benjamin Britten), 프로코피예프(Sergej Prokofiev) 등의 음악가들이 활동하였다.

페니체 극장은 1792년에 조반니 파이지엘로(Giovanni Paisiello)의 오페라 <I Giuochi d' Agrigento>로 오픈을 하였으며 1836년 12월 13일에 첫번째 화재로 극장이 전소된다. 사망한 초기 건축가 잔안토니오 셀바(Giannantonio Selva)를 대신해 메두나(Meduna) 형제가 1년만에 페니체 극장을

재건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1996년 1월 29일에는 방화에 의한 두번째 화재로 페니체 극장은 또다시 전소가 된다.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베네치아 시와 여러 단체의 도움으로 재건되어 2003년에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R. Mutti)의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재개장 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재개장 공연은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가 되었으며 공연장에는 당시 이탈리아 대통령 캄피(C. A. Ciampi)도 참석하여 역사적인 페니체 극장의 재개장을 축하하였다.

오페라 극장의 입구에는 황금으로 된 불사조 심볼이 걸려 있는데 La Fenice 는 이탈리아어로 불사조란 뜻이다. 두 번의 대형 화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건되어





이탈리아인들과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극장이 된 것은 불사조란 이름에 어울리는 역사이다.

극장 규모는 1,000여 좌석으로 규모는 작지만 내부는 화려하고 세련된 황금색 장식과 연옥색 박스석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천장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샹들리에에는 우아함의 극치를 자랑한다. 말발굽 모양의 극장은 완벽한 음향으로도 유명하다.

페니체 극장은 상업 극장이어서 처음 극장을 지을 때 귀족들에게 판매가 된 박스석만 있었으며 로얄석은 없었다. 1807년 나폴레옹의 베네치아 방문을 계기로 처음 로얄석을 만들었으며 1848년 독립운동 외중에 로얄석은 파괴가 되었다가 1849년 오스트리아 왕가에 의해 다시 복구되었다.

매 시즌 오페라, 발레 그리고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는데 올해 2016년 시즌에는 한국 성악가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소프라노 여지원, 바리톤 김주택, 베이스 임채준이 그 주인공들이다.

소프라노 여지원(Vittoria Yeo)은 3월에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Madama Butterfly)의 초초산(Cio-Cio-San)역으로 데뷔를 하며 이 공연은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지휘봉을 잡는다. 바리톤 김주택(Julian Kim)은 5월에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Il Barbiere di Siviglia)의 피가로(Figaro)역으로 그리고 베이스 임채준(Simon Lim)은 도니제티의 오페라 라파보리트(La Favorite)의 발타자(Balthazar)역으로 열연한다.

소프라노 여지원은 2015년 지휘자 리카리도 무티의 선택을 받아 베르디 오페라 <에르나니>(Ernani)의 엘비라(Elvira)역으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혜성같이 데뷔를 하였다. 올 5월에는 스웨덴 스톡홀름 로열 오페라극장에서 올리는 베르디 오페라 <맥베스>(Macbeth)에서 맥베스 부인 역으로 캐스팅 되어 또 한번 무티와 작품을 올린다. 유럽 전역에서 더욱 왕성한 활동이 기대가 된다.

바리톤 김주택은 선화예고를 졸업 후 이태리로 조기 유학을 하여 밀라노 베르디 음악원을 졸업하였으며 유수의 국제 성악 콩쿨을 입상하였다. 2009년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이탈리아 예지(Jesi)의 페르골레지 극장(Teatro Comunale G. B. Pergolesi)에서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Il Barbiere di Siviglia)의 피가로(Figaro)로 오페라 무대에 데뷔하였으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차세대 바리톤이다.

베이스 임채준은 영남대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라 스칼라 아카데미를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였다.

유수의 국제 성악 콩쿨에서 입상을 하였으며 특히 2010년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 성악 콩쿨에서 3위에 입상을 하였다. 2008년에는 라 스칼라 극장에서 바리톤 레오누치와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스키키>(Gianni Schicchi) 공연을 하였으며 이탈리아 주요 극장에서 활동 중이다.

이탈리아의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한 시즌에 우리나라 출신 성악가 3명이 활약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열악해져가는 클래식 시장에서 세계 성악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무대를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매우 고무적이고 자랑스럽다. 더 많은 한국 성악가들이 이탈리아와 유럽 극장으로의 진출과 활약을 기대해 본다.

글/ 김진홍

북유럽의 소리를 들려주는 오케스트라!

스웨덴 예블레 심포니오케스트라

2016. 6. 4. (Sat) 19: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등급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티켓 V석 6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7만원
(유료회원 30%, 무료회원 10%, 단체 20%)
문의 052-275-9623 www.ucac.or.kr

출연진 지휘 : 제임 마틴 협연 : 가보르 볼도초키(트럼펫)
연주 : 예블레심포니오케스트라

P.R.O.G.R.A.M

핀란드아 시벨리우스
트럼펫 협주곡 하이든
교향곡 8번 드보르작



Performances

공연가이드

제19회 울산연극제

공연정보 4. 1(금) 19:30, 4. 3(일)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사)한국연극협회울산광역시지회
입 장 료 R석 10,000원
공연개요 제34회 전국연극제 참가팀 선정을 위한 예전전

"나뭇" - 우리 춤 봄에 태어나다

공연정보 4. 5(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파래소국악실내악단
입 장 료 S석 5,000원
공연개요 입춤, 교방무, 승무등 우리 고유의 전통무용에 파래소의 라이브 반주로 이루어지는 공연으로 전통문화를 오롯이 느낄수 있는 공연

2016 사랑의孝잔치

공연정보 4. 6(수) 14: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광역시/ 울산문화방송(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지역노인들을 초청하여 흥겨운 공연과 위로의 장을 마련하고 젊은세대들에게 경로사상 고취와 가족공동체 친밀성 회복은 물론 장차 실버시대에 적극적 참여 그룹으로서의 진취적 노인상 구축에 기여

울산크리스찬 색소폰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4. 7(목)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크리스찬색소폰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클래식 및 성가등을 색소폰 오케스트라에 맞게 편곡하여 색소폰 합주와 합창단의 공연을 울산시민들께 연주함

울산남구청소년오케스트라 제17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4. 9(토)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청소년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클래식 연주(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건강하고 성숙한 청소년 문화 창달)

국악연주단민들레 기획공연-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울산판타지Ⅱ"

공연정보 4. 9(토)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국악연주단민들레
입 장 료 S석 5,000원
공연개요 퍼포먼스와 Sand Art를 가미하여 "울산판타지" 주제로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를 선보이고자 한다. 또한 樂, 歌의 조화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한 무대에서 멋과 흥을 흠뻑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울산에서 초연되는 곡으로 울산의 국악 실내악에 새로운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Ark Ensemble 함께하는 "만원의 행복"

공연정보 4. 12(화)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Ark Ensemble

입 장 료 S석 10,000원

공연개요 잘 알려진 뮤지컬의 음악들을
울산 시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선보이려합니다.

최현우 매직컬 "더 설록" - 울산공연

공연정보 4. 16(토) 15:00, 19:00
4. 17(일) 14:00, 18: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좋은날 음악기획

입 장 료 R석 66,000원 S석 55,000원
A석 44,000원

공연개요 마술의 신비한 비주얼과 뮤지컬의
결합을 시도한 '매직컬'로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뮤지컬
배우의 노래와 최현우의 환상적인
마술로 관객에게 더 큰 감동을
전사함

한·러 합동 연주 및 공연

공연정보 4. 19(화) 19:00, 4. 20(수)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예술고등학교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예고와 러시아의 자매결연
행사로 첫날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합동공연으로
막을 올려
둘째날은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시대와
바이올린, 플루트, 오보에, 성악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음악
합동 연주회

가족뮤지컬 앤서니브라운의 "돼지책"

공연정보 4. 22(금) 11:00
4. 23(토) 11:00, 13:00, 15:00
소공연장

공연주최 가람뮤지컬

입 장 료 S석 20,000원

공연개요 엄마의 소중함과 행복한가정의
필요조건을 배우는 가족뮤지컬

2016 울산YMCA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4. 23(토)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YMCA합창단

입 장 료 R석 20,000원 S석 10,000원

공연개요 틀에 짜여진 기존의 고전적
합창연주에서 벗어나 시대와
격조에 맞는 편곡들로 짜여진
수준 높은 곡들을 경험하고
합창과 다양한 악기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무용과 합창단원
들의 독창적인 개인기 등
YMCA합창단이 만드는 세련된
합창 공연

제2회 울산 열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4. 24(일)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 열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아마추어 연주자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울산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

판소리 "수궁가" 완창 공연

공연정보 4. 24(일) 15: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조명진판소리연구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중요무형문화재 제6호인 판소리
5바탕중 하나인 수궁가를 1인이
3시간 30분 가량의 전대목을
완창하는 내용

명작뮤지컬 "장화신은 고양이"

공연정보 4. 27(수) 10:40 소공연장

공연주최 극단 님비곰비

입 장 료 S석 15,000원 단체 5,000원

공연개요 한 가난한 방앗간 주인이
자신의 세 아들에게 유산으로
각각 방앗간과 당나귀 고양이들
물려준다. 막내아들은 유산
상속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고양이를 받은 것에 대한
한탄을 하는데....

흑부리 영감과 도깨비

공연정보 4. 29(금) 11:00, 16:00
4. 30(토) 11:00, 14:00, 16: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우리두리

입 장 료 R석 25,000원

공연개요 배우 연기와 함께 호흡하여
즐기는 가운데 극이 주고자하는
교훈을 관객들에게 심어주고자
합니다.

Exhibitions

전시가이드

제3회 권오용 사진전

전시기간 3. 30(수)~4. 4(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개인(권오용)
전시내용 1971년 4월 온산국가공단
고시로 이주된 20여개의 크고
작은 마을사진, 공장부지가 된
산과 전답 등의 풍경사진,
면사무소, 관공서, 학교 등
사라진 옛 사진들 총 50여점
전시

람림학당 사경 전시회

전시기간 3. 30(수)~4. 4(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람림학당 사경반
전시내용 사경반 회원들의 서예, 사경,
사불, 민화작품 전시회 개최로,
목향으로 그려낸 문자, 만다라
세계 작품 총 70여점 전시

제5회 직관과 몽상 사진전

전시기간 3. 30(수)~4. 4(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직관과 몽상
전시내용 직관과 몽상의 다섯 번째
회원전으로, 흑백필름 작업을
통해 아날로그적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사진작품 총 40여점
전시

제36회 청우수석회 회원전

전시기간 4. 2(토)~4. 3(일), 2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청우수석회
전시내용 청우수석회 회원들의 수석 및
야생초 작품 총 50여점 전시

제21회 아름다운 눈빛 미술제

전시기간 4. 6(수)~4. 11(월), 6일간
전시장소 제1, 2, 3, 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술협회
전시내용 울산에 거주하는 순수 아마추어
작가들의 미술 전시회로 문화
교실, 취미반, 동호회, 개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풍경화, 정물, 수채화, 인물화,
한국화, 문인화 등 다양한
구상 미술작품 총 500여점 전시

제8회 우보 배성근 서예전

전시기간 4. 13(수)~4. 18(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개인(배성근)
전시내용 한글, 한문, 문인화 등 새로운
서예의 미적 탐구작품 및
기존에 전시되지 않은 새로운
작품과 소품, 병풍 등 서예작품
총 45여점 전시

제9회 좋은 사람들전

전시기간 4. 13(수)~4. 18(월), 6일간
 전시장소 제2, 3전시장
 전시주최 좋은 사람들
 전시내용 회원 30명의 작품 전시로
 풍경, 인물, 정물 등 다양한
 소재와 제작방법으로 표현한
 서양화 작품 총 45점 전시

제5회 호호전

전시기간 4. 13(수)~4. 18(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HoHo
 전시내용 회원 각자의 또 다른 느낌과
 일상의 인상, 스쳐 지나가는
 다양한 느낌과 스타일들을
 화폭에 담아내어 표현한 서양화
 작품 총 30여점 전시

한민족 역사 그림전

전시기간 4. 20(수)~4. 25(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선도문화진흥회
 전시내용 한민족의 상고사 그림을 통해
 울산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선사시대의 그림작품 총 40여점
 전시

제12회 울산누드크로키회전

전시기간 4. 20(수)~4. 25(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누드크로키회
 전시내용 선의 자유로움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정기전으로,
 누드 크로키작품 총 50여점
 전시

이상덕 개인전

전시기간 4. 20(수)~4. 25(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개인(이상덕)
 전시내용 아름다운 추억 이상덕 사진별곡'
 사진집 발간에 따른 개인전을
 마련하며, 1970~2015년까지
 약 45년간의 사진들을 책으로
 묶어서 발간하며 엄선된 대표
 사진작품 총 70여점 전시

제1회 노희선 조각보전

전시기간 4. 27(수)~5. 2(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개인(노희선)
 전시내용 조각보, 악세사리, '차'자리에
 맞는 다양한 소품 등 조각보
 작품 총 40여점 전시

제1회 정명희 개인전

전시기간 4. 27(수)~5. 2(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개인(정명희)
 전시내용 울산대 평생교육원 현대미술
 실기반에서 7년간 배우며
 쌓은 현대미술작품 총 60여점
 전시

김재영 목조각 작품전

전시기간 4. 27(수)~5. 2(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개인(김재영)
 전시내용 인간의 모성애를 예술로
 승화시켜 생활속 삶의 모습을
 목 조각으로 표현한 작품
 총 50여점 전시



별들의 전쟁, 베토벤 에디션이 펼쳐진다.

앙상블 디토 & 비엔나체임버 오케스트라

2016. **6. 17.** (Fri)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등급 초등학교생 이상 관람가 티켓 V석 7만원, R석 6만원, S석 5만원 (유료회원 30%, 무료회원 10%, 단체 20%)
문의 052-275-9623 www.ucac.or.kr

출연진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 지휘 슈테판 블라더
앙상블디토 | 임동혁(피아노), 리처드 용재 오닐(비올라), 스테판 피 재키브(바이올린), 마이클 니콜라스(첼로)

04

2016
April

공 연 일 정

- 대 대공연장
- 소 소공연장
- 야 야외공연장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람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erformances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소 제19회 울산연극제 (19:30)	대 뮤지컬 '레베카' (15:00, 19:00)
3	4	5	6	7	8	9
대 뮤지컬 '레베카' (15:00, 19:00) 소 제19회 울산연극제 (19:30)		소 "나뭇" -우리 춤 봄에 태어나다 (19:30)	대 2016 사랑의 훈찬치 (14:00) 소 뒤란 (19:30)	대 울산크리스찬 색소폰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19:30) 소 시립합창단 해설이 있는음악회 세계의 민속음악 여행- 미국합창음악의 밤 (20:00)	대 시립교향악단 Majestic Series 2016 교향악축제 참가 기념 연주회 (20:00)	대 울산남구청소년오케스트라 제17회 정기연주회 (19:30) 소 국악연주단만들레 기획공연-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울산판타지 II" (17:00)
10	11	12	13	14	15	16
		소 Ark Ensemble 함께하는 "만원의 행복" (19:00)			소 연극 '에쿠우스' (19:30)	대 최현우 매직컬 "더 설록" - 울산공연 (15:00, 19:00) 소 연극 '에쿠우스' (15:00, 19:00)
17	18	19	20	21	22	23
대 최현우 매직컬 "더 설록" - 울산공연 (14:00, 18:00)		대 한 · 러 합동 연주 및 공연 (19:00) 소 모닝콘서트 모바일 클래식(양상블 나인) (11:00)	대 한 · 러 합동 연주 및 공연 (19:00) 소 뒤란 (19:30)		소 가족뮤지컬 앤서니브라운의 "돼지책" (11:00)	대 2016 울산YMCA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소 가족뮤지컬 앤서니브라운의 "돼지책" (11:00, 13:00, 15:00)
24	25	26	27	28	29	30
대 제2회 울산 열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소 판소리 "수궁가" 완창 공연 (15:00)			소 명작뮤지컬 "장화신은 고양이" (10:40)	대 시립무용단 2016 타타타 (우수레퍼토리 시리즈) (20:00)	소 흑부리 영감과 도깨비 (11:00, 16:00)	소 흑부리 영감과 도깨비 (11:00, 14:00, 16:00)

- 1 제1전시장
- 2 제2전시장
- 3 제3전시장
- 4 제4전시장
- 상 상설전시장
- 야 야외전시장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람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 	4	5	6 1 2 3 4 제21회 아름다운 눈빛 미술제 ~4. 11(월)	7 야 전국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 2. 26(금)~5. 25(수) 상 황한선전 3. 1(화)~4. 29(금)	8 1 제3회 권오용 사진전 3. 30(수)~4. 4(월) 2 람림학당 사경 전시회 3. 30(수)~4. 4(월) 4 제5회 직관과 몽상 사진전 3. 30(수)~4. 4(월)	9 3 제36회 청우수석회 회원전 ~4. 3(일)
10	11	12	13 1 제8회 우보 배성근 서예전 ~4. 18(월) 2 3 제9회 좋은 사람들전 ~4. 18(월) 4 제5회 호호전 ~4. 18(월)	14	15	16
17	18	19	20 2 한민족 역사 그림전 ~4. 25(월) 3 제12회 울산누드크로키회전 ~4. 25(월) 4 이상덕 개인전 ~4. 25(월)	21	22	23 1 한국 미술 특별전 ~5. 14(토)
24	25	26	27 2 제1회 노희선 조각보전 ~5. 2(월) 3 제1회 정명희 개인전 ~5. 2(월) 4 김재영 목조각 작품전 ~5. 2(월)	28	29	30

ARTS FRIEND 회원 가입 안내

01

울산문화예술회관의 『ARTS FRIEND』가 되려면,

구 분	가입기준	연회비	혜택인원
일반회원	만 19세 이상	2만원	2명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1만원	1명
가족회원	한가족	4만원	4명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명 이상)	1만원(1명)	가입인원

• 가입문의 |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8 www.ucac.or.kr

02

『ARTS FRIEND』가 되시면,

월 1회 발행되는 『ARTS FRIEND』 우송 및 각종 공연정보 안내

- 연간 50여회의 울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공연 30% 할인
- 기획공연 30% 이내 할인
- 댄스, 모닝콘서트 등 상설기획공연 30% 할인
-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한 공연 초대
- 회관 주최 유료전시 30% 할인

03

공연을 즐기는 TIP!

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 100% 즐기는 법

1

문예정보지
『Arts Friend』로
어떤 공연을
볼 것인지 선택

2

예매가 오픈되면
보내주는
문자 확인 후,
조기예매 해서
좋은 자리 잡기

3

다양한 혜택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즐기기

4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하여
입장권 구매하기

뮤지컬
그 여름, 동물원



故김광석 20주기 맞이, 추모 이벤트!

뮤지컬 그 여름, 동물원

2016 5. 28(Sat) 15:00, 19:00 | 5. 29(Sun) 14:00, 18:00

연령 만 13세 이상 관람가 티켓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A석 4만4천원 (유료회원 20%) 문의 052-275-9623 ucac.or.kr 1544-1555 ticket.interpark.com
출연 최승열, 임진웅, 방재호, 홍종화, 유제윤, 허은미, 조훈